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anuary 10 2025 Vol. 943

남가주 새벽 강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은..."

진유철 목사 "예측이 아닌 순종의 능력", 민종기 목사 "은혜의 생명수가 다음 세대에게로", 김한요 목사 "죄악의 삶 끊어내는 위대한 결단"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남가주 교회들은 특별새벽예배로, 신년 축복 성회로 모이며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Youtube screen shot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남가주 교회들은 특별새벽예배로, 신년 축복 성회로 모이며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는 2일부터 15일까지 진유철 목사, 김영길 목사, 고창현 목사를 초청해 2025,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감사한인교회에서 1월 6일(월) "예측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를 바탕으로, 믿음의 위대한 역전승이 가능하게 된 비결에 대해 전했다.

그는 욥이 역전승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절망 속에도 자신의 길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며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외에는 자동 지옥 가는 우리 생명을 건질 길이 없고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대로 살려는 고집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다. 예수의 십자가 만이 우리 불순종했던 자아를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순종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었고, 가장 존귀하고 높은 구원의 이름이 되게 했으며 가장 위대한 승리의 결말을 갖고 왔다. 세상은 확률과 예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점일획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나성영락교회는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집회로 모이고 있다. 1월 6일(월) 새벽집회 첫 째 날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겔 47장)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민종기 원로목사(충현선교교회)는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들어 보셨습니까?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에서 시작되어 수백 마일을 흐르는 강이 시작된다. 아주 작은 샘으로부터, 그 석회암 반석이 쪼개지면서 검룡소가 나온다. 그 검룡소로부터 수백 마일을 흐르는 강이 시작된다. 콜로라도 강도 마찬가지이다. 로키 산맥의 작은 물줄기로 부터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수가 내 마음으로부터 작게 시작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만국을 소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 에스겔은 회복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서, 핵심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샘이다. 예루살렘 성에 기혼샘이 있는데 그 샘을 끌어들여 실로암을 만들었고, 그 실로암을 통해 사람들을 성을 방어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말한다. 사람을 살리는 샘이 성전에서 시작된다. 이 시대에서는, 나성영락교회 성전에서 성령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샘물을 체험해야 하고 여러분 심령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민종기 목사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개인적인 은혜의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는 성숙의 단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 나성영락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 대한민국이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 받았다는 비전을 나누며 설교를 마쳤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미셸 스틸 의원,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

미국 내 한인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 주한미국대사인 필립 골드버그는 곧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미셸 스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며 한미 관계 강화에 주력해 온 인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에서 다수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지한 바 있다.

미국 뉴스맥스 등 주요 매체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스틸 의원을 추천했으며, 이와 같은 의견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원과 같은 공화당 내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해왔다. 스틸 의원은 3선 도전 직전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주한 대사 임명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정책에서 한미 관계를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대선 기간 중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미셸 스틸 의원에 대해 '가족이 공산주의로부터 탈출한 미국을 우선시하는 애국자'로 평가하면서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고 채동선 전도사 1주기 추모예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전 담임 목회자 고 채동선 전도사 1주기 추모예배가 오는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4시 30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열린다.

교회와 유가족은, "채동선 전도사님을 그리며 그분이 걸어오신 삶의 발자취와 말씀. 그리고 헌신하신 사역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시: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마가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마가교회 고 채동선 전도사.

김민선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중생은 대신 죽은 십자가, 성결은 함께 죽은 십자가”

미주사중복음연구소 '21세기 사중복음과 해설' 펴내

미주사중복음연구소(소장 류종길 목사)가 ‘21세기 사중복음과 해설’을 펴냈다.

이 책은 사중복음을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진 A.B.심프슨의 사중복음을 서울신대 전 총장 한영태 박사가 번역 및 해설을 했다. 1부 ‘심프슨의 사중복음 번역’, 2부 ‘사중복음에 대한 해설’, 3부 ‘심프슨의 사중복음 영문판’으로 구성된 책으로, 1부 ‘심프슨의 사중복음 번역’에서는 과거 심프슨이 주장했던 사중복음의 중심 교리에 대해 하나씩 소개하고 있다.

2부 ‘사중복음에 대한 해설’에서는 1부에서 소개한 심프슨의 사중복음의 신학 개념을 설명한다.

류종길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중복음을 성결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로 오해를 하는데, A.B.심프슨은 장로교 목사로, C&MA 교단의 창시자이자 사중복음을 주창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 성결교회가 시작을 할 때 지도자들이 교단 전도 표제로 사중복음을 채택했다.

류 목사는 “사중복음은 굉장한 발상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있다. 어떤 교리든지 설명하다 보면 사중복음, 이 넷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며 “계시록, 다니엘서도 재림과 관계가 되는데, 성경을 분류할 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목사는 침례교 목회자 아들이었지만, 서울신학대에 다니면서 사중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라며, 1년 설교를 계획할 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부분을 준비하면 줄거리가 서게 되고, 설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 말하면서 “성결은 사랑 충만이고, 기독교인의 완전한 모습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가 중생은 문이고, 성결은 방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신대를 역임했던 김태구 교수는 ‘예수께서 대신 죽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중생이다고 했던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다”라며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전에는 혈기가 나오지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것이 성결이다. 중생은 대신 죽은 십자가이고, 성결은 함께 죽은 십자가라 할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 김태구 목사님이 이것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았었다”고 했다.



미주사중복음연구소에서 저서를 들고 있는 류종길 목사. ⓒ기독일보

류 목사는 “줄거리를 잡아놓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읽히고 정리가 잘 된다. 이 책을 읽고 성경을 보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양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은 성경을 알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뼈대를 먼저 세우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1면 기사 〈남가주 새벽 강단...〉에 이어서

베델교회는 2025년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새 첫째 날, 김한요 목사는 룻기 1:14를 바탕으로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란 주제로 설교하며 진흙탕 같은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룻이 어머니를 섬기면서 보니, 자기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자기의 죄악의 삶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길 바란다. 지저분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겠다, 죄를 벗겠다, 내가 자꾸 넘어졌던 죄악의 문제를 칼 같이 끊어내야 겠다, 여러분을 항상 끄집어 당기고 태클을 거는 죄악의 문제를 끊어야 한다. 나를 항상 옥죄고 있는 죄악의 문제, 내 신앙을 곤두박질하게 하는,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 나를 넘어뜨리고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 습관이 있다. 영적인 발전을 못하게 내 앞을 탁 막고 있던 것을 떠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룻이 결단한 게 바로 이 결단이었다.”

“2025년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 뭐냐, 하나님을 붙좇는 결단이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단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기도하자. 생명을 건 이 결단 속에서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기 시작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결단,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주님의 결심과 같이 룻도 그런 결심을 한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안정된 길,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살았던 길을 뒤로 하고 떠나자.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지. 우리 가정은 늘 이렇게 살았지’ 이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자. 옛날의 모습들, 진흙탕 같았던 그런 삶을 떠나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열어가자. 눈덮인 길에 첫 발자국을 내듯,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자.”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는 1월 4일(토) 새벽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인생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다섯 명의 총합이 당신이라고 말한다. 탁월한 멘토들을 만나 그분들을 만나 영향을 받다보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 복이 없다”고 선포했다.

“성령을 받아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과거를 떠나는 것이다. 아무리 과거 치유하고 내적 치유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꿈을 꾸고 목표를 갖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 꿈을 꿔야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사람을 움직이고, 일꾼을 보내주신다.”



한기홍 목사는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모든 세대가 선교에 동참하는 비전을 선포했고 신승훈 목사는 건강의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겸손하게 경외하는 데 있다고 선포했다.

강준민 목사는, 첫 네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의 문이 열린다. 예수를 만나면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새로운 인물로 우리를 키우신다. ‘그물을 버렸다’(마 4:20)는 것은 과거를 버린 것, 옛 자아, 어부라는 정체성을 버린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후 5:17). 우리의 과거가 우리 미래를 규정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올해의 표어를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로 삼은 은혜한인교회에서는 1월 6일부터 11일까지 특별새벽기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월),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새벽예배에서 한기홍 목사는 사도행전 2: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선교를 위해 쓰시는 지에 설교했다.

그는 “각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나? 첫째, 주님은 주님의 아들들을 사용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성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 자녀는 자기 앞에 있는 먹이만 보는 닭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독수리 신앙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의 은혜한인교회가 있게 한 1세대의 깊은 신앙의 뿌리, 선교의 DNA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 신년축복성회를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오후 7시30분에 개최하며 성도들의 영을 깨우고 있다.

1월 6일(월) 신년축복성회에서 신승훈 목사는 “건강의 복을 받는 네 가지 비결”(출15:26)로 말씀을 전하며, (1) 말씀에 순종, (2)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3)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4)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건강의 비결이 있다고 설교했다.

그는 예수님 사역의 1/3이상은 치유 사역이었다며 성경의 치병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고난과 고통을 받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GP 선교회 미국 대표, "선교사의 아픔 잘 감싸주길"

백운영 선교사, GP 선교회 미국 대표로 취임

GP(Global Partners)선교회가 2일(목) 오후 7시에 디사이플교회에서 미국 대표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배선호 선교사가 이임하고 백운영 선교사가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다.



백운영 선교사. ©기독일보

취임사에서 백운영 선교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한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시리라 믿는다.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영 선교사는 GP선교회 국제대표를 지냈고,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교회를 이끈 바 있다.

이임사를 전한 배선호 선교사는 "지난 4년 동안 선교회를 섬겨 오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며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간구하며 갈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초교파 파송선교단체인 GP(Global Partners)선교회가 2일(목) 오후 7시에 디사이플교회에서 미국 대표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이날 '타도 타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대영 이사장은 "오늘날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한다. 철저히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신다"며 "백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렵지만 대표 선교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면을 한 조용중 선교사는 "한 분 한분의 선교사를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감당하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선교사님의 아픔을 잘 감싸주는 대표로 서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GP선교회는 1968년 한국 최초의 자생 선교단체로 설립된 국제선교협력기구(KIM)을 뿌리로 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OC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 "본질에 충실하자"

제 34대 OC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 및 OC교계 송년회가 12월 29일 오후 5시에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날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사역이 됩시다'(요 8:32)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복음 중심의 사역을 강조했다.

그는 설교에서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라며, "본질에 충성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성경 중심의 사역이 지역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기홍 목사는 내년 OC 지역 교회 협의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이창남 목사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다. 또한, "사역에 있어 본질에 충실한 사역이 될 때 OC 지역 교회 협의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며, 성경 중심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다.

설교 중 한 목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나라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정치적 실책으로 나라가 망했다. 대한민국이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와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에게도 고국의 일이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구국 기도회를 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목회자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복음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 안에 자유와 평안, 생명이 있다"고 말했다.

OC교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창남 목사는 지역 교계와 이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OC 교협의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목사는 "OC 교협은 역대 회장들과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잡았다"며 "이들이 남긴 귀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가는 것이 제34대 회장단의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제 4대 OC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가 12월 29일 오후 5시에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30명의 MK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기독일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LA 115기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오는 1월 18일(토)부터 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사랑의빛 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열린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배우며 가정의 회복과 행복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5년 한국에서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현재 전 세계 75개국, 300여 도시에서 43만여 명이 수료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만 2000년 이후 1,020회의 아버지학교가 열려 3만 5천여 명이 수료했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접수는 온라인 https://forms.gle/hwA9QNCTXkrcRJXh6에서 가능하다. ▶문의 : 213)220-0503 김마루, promising-maru@gmail.com

김민선 기자

송영목 교수 초청 목회자 세미나

미주복음방송과 남가주 동신교회는 목회자 세미나를 1월 14일(화) 오전 10시-2시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고신대 송영목 교수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대상은 목회자로 선착순 40명.

평신도를 위한 바이블 세미나는 1월 14일-17일(화-금) 오후 7시-오후 9시까지 남가주 동신교회1e에서 개최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714-608-9556으로 하면 된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프뉴마 워십 정유성 목사, 찬양사역자에서 목회자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작곡
유다지파, 프뉴마 워십 설립
오렌지한인교회 담임목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의 작곡가이며, 프뉴마 워십을 창립해 남가주에 새로운 찬양 사역의 부흥에 기여했던 정유성 목사가 오렌지한인교회(OKC) 제9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6개월이 됐다.

2024년도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팀에서는 마지막 게스트로 정유성 목사를 초청해 그의 찬양에 담겨 있는 의미, '찬양사역자'에서 '담임 목회자'로의 그의 사역의 전환에 대해 나누었다.

1998년 광림교회 유다지파를 설립해 찬양팀을 이끌고, 2002년 도미 후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활동했던 그는,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아래에서 9년간 부사역자로 훈련을 받으며 그 자신의 달란트를 앞세운 찬양사역자로서의 정체성 보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했다.

그의 대표곡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는 베델한인교회 부목사로, 성도들 가정을 심방 다닐 때 만든 곡이다. 그들의 이민 생활 가운데 아픔과 기도제목을 듣고 목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담아낸 곡이다. 이 외에도 정유성 목사는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그곳에서 얻게 된 말씀에 대한 묵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120곡을 작곡했으며, 목회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찬양이라는 형식에 담아 표현해내고 있다. 그는 말씀을 찬양으로 담아낼 때, 그 곡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다지파, 프뉴마워십을 이끌었던 정유성 목사는 이제는 오렌지 한인 교회 목회의 자리에서, 목회를 통해 얻은 묵상을 찬양에 담아내고 있다.

베델교회 이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여정은 덴버 한인북부장로교회였다. 얼바인의 대형교회에서 콜로라도의 교회로 목회지가 바뀔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존중'이었다. "어떤 사이즈, 어떤 역사를 지닌 교회든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1년이건, 40년이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덴버 한인북부장로교회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와 뿌리가 있는데,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무했다."



오렌지한인교회는 수요예배를 찬양집회로 드리고 있으며, 예배와 찬양에 기름부으심이 있는 교회를 추구한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덴버 한인북부장로교회에서 시무한 지 7년 반이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섬겨야 될 기간이 딱 그때까지'라는 확신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짐을 퍼블릭 스토리지에 다 넣어둔 채 자동차 한 대에 온 가족이 몸을 실고 로드트립을 떠났다. 대학생인 아들과 딸을 기숙사에 내려주고 그와 사모는 주소지 없이 미국 전역을 돌며 10개월을 살았다.

그 광야의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 곳이 오렌지한인교회였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 처음 자리잡았던 익숙한 곳으로 돌아왔다며, "지난 달에 48주년을 맞았다. 오렌지한인교회는 밝고, 따뜻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고 성숙한 교회라고 소개하며, "예배와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매년 늘 발전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AEU 미성대, 결혼 및 가족 치료 자격증 과정 오픈


미성대학교 김의진 교수(Doctor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미성대학교(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이하 AEU)가 제공하는 결혼 및 가족 치료(Marriage and Family Therapy, MFT)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MFT 면허 인증기관인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s (BBS)의 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으로 상담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의진 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맡아 가르치며 한인 커뮤니티와 디아스포라를 위한 상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MFT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 상담이 개인을 주체로 삼는다면, 저희는 가족이나 부부 같은 관계 시스템을 상담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이 과정이 독특한 상담학 분야임을 설명했다. 특히, 프로그램 졸업 후에는 어소시에이트 과정을 거쳐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담소 개업, 병원,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AEU MFT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온라인 학습과 한국어 강의 지원이다. 김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학습이 가능하며,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아 언어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며, "유학생 및 재외 한인들에게 이상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현지의 임상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멘토링과 학문적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MFT 분야는 현재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는 "트라우마 극복 및 감정 조절과 같은 최신 연구 결과를 접목한 가족 치료 기법을 배울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상담에 관심은 있지만 문턱이 높아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 과정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담 분야로의 도전을 독려했다. 또한, "AEU가 제공하는 크리스천 베이스 교육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와 세계 디아스포라를 섬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대학교의 결혼 및 가족 치료 석사 과정은 직업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앙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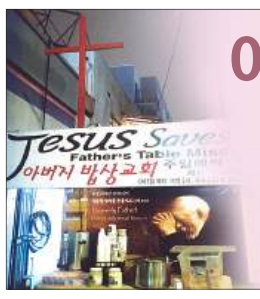
MFT란?

결혼 및 가족 치료(Marriage and Family Therapy, MFT)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 가족, 부부,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다룬다. MFT 치료사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관계의 역학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치료한다.

MFT 치료사는 다양한 기술과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개인의 행동 변화, 관계 개선,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MFT는 체계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개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더 큰 체계(가족, 사회 집단, 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의: 323-643-0301, info@aeu.edu.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당신도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
■ 화요일 오후 5:30
■ 금요일 오후 5:30
■ 주일 오후 2:30
1. 치유와 축사
2. 대적기도
3. 거룩한 신앙생활
4. 일반적인 영적전쟁
5. 차원높은 영적전쟁
6. 마지막 시간을 위한 훈련
회복기도의 집
박태욱 목사 T.(213)500-0480
3054 W 8th ST. STE 204, LA, CA 90006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Lic#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2025 설날맞이

센터메디컬그룹

무료나눔 이벤트





무료 떡국 떡 나눔

2025년 1월 27일

오전 10시

9027 Via Vista Dr. **Buena Park**

무료 떡국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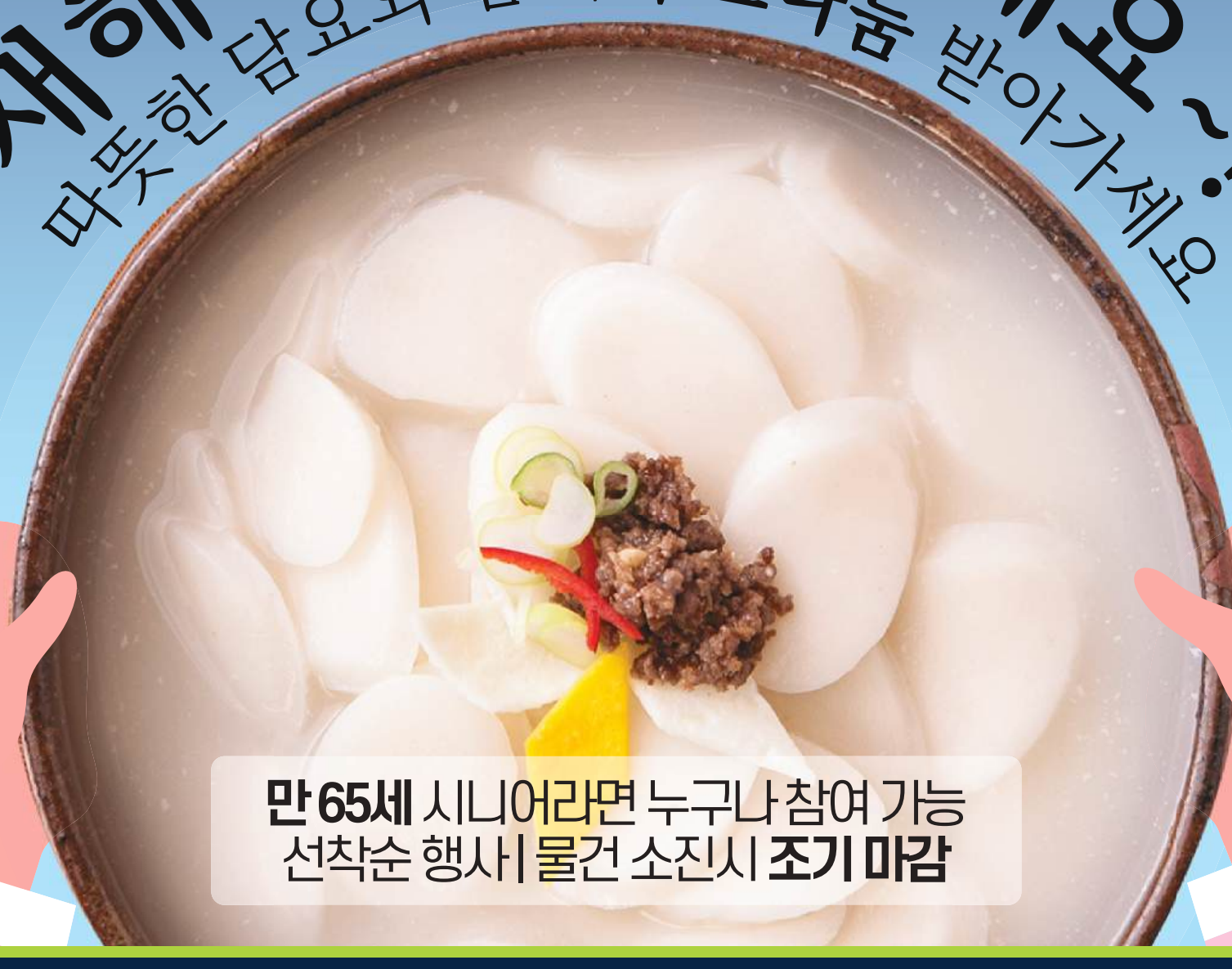
2025년 1월 28일

오후 12시

3339 W Temple St. **Los Angele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담요와 함께 무료나눔 받아가세요



만 65세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선착순 행사 | 물건 소진시 **조기 마감**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3098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운동권 출신들의 폭거”

교회언론회, 민주주의와 법치 붕괴 우려 표명

내란죄 확정도 안 됐는데 공공연히 확정범?
고도의 통치 판단인지 헌재 결정 기다려야
대행의 대행도 탄핵 압박,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체포 영장에 ‘법 예외’ 적시 기막혀
대통령, 직무 정지됐으나 ‘현재 국가 원수’
체포 동조하는 세력, 민주주의 죽이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대통령 및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체포 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 붕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회는 3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확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적 판단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하였다. 그것도 대통령 대행에 준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급으로 취급하여 탄핵시켰다”며 “이때 국회의장은 탄핵가결 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급으로 언급하며 투표를 감행하였다(헌법재판소 해설서에는 대행도 3분의 2를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국회의장이 2분의 1로 선언하여 강행처리 하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거기에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여, 결국 그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데 이른다”며 “그는 부총리이며 장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장관급에서 임명할 수 있나? 이 경우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보다 앞서 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를 탄핵하던 기준과도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며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그리고 보통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편법까지 동원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거기에다 영장 발부를 허락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 못함)와 제111조(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를 예외로 한다는 기가 막힌 적시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로 보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이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설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는 한, 국가 원수이다. 지금도 직무는 잠시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원수이다.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소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의회의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헌재의 시간’을 맞이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공정심과 헌법의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치주의’를 표방한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또 법치주의 나라가 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확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적 판단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초’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붙는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하였다. 그것도 대통령 대행에 준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급으로 취급하여 탄핵시켰다. 이때 국회의장은 탄핵가결 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급으로 언급하며 투표를 감행하였다(헌법재판소 해설서에는 대행도 3분의 2를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국회의장이 2분의 1로 선언하여 강행처리 하였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가능한 것인데,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복치고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여러 명의 검사들, 임명되자마자 잘못을 할 겨를도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직위의 감사원장, 그리고 야당 대표를 쳐다보았다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29명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였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만, 이때는 대통령 한 명에 대한 탄핵으로 끝났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탄핵정국으로 나라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법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다. 거기에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여, 결국 그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데 이른다.

그는 부총리이며 장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장관급에서 임명할 수 있나? 이 경우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보다 앞서 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를 탄핵하던 기준과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 상황. ⓒ채널A 유튜브 화면 캡처

또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출동하였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기고만장이다. 그리고 보통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편법까지 동원하였다. 또 자정에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거기에다 영장 발부를 허락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 못함)와 제111조(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를 예외로 한다는 기가 막힌 적시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로 보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이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설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는 한, 국가 원수이다. 지금도 직무는 잠시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원수이다.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이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 현 정권을 하루속히 무너트리려는 책동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선동에만 휩쓸리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멀리하고, 선동하는 것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국가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온 경험이 많다. 지금이 바로 그런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헌재의 시간’을 맞이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공정심과 헌법의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바로 건강을 묻는 인사입니다



더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美 영 김 하원의원 "한미동맹 흔들려는 세력이 탄핵 주도"

탄핵 주도 세력, 한미일 협력 약화시키려해
한국인들, 광화문에서 태극기 · 성조기 흔들어
중국 '정보 조작 캠페인'과 연관될 가능성도

한국계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 김 하원의원은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의 공격성 증가와 중국 공산당(CCP)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한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김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과) 같은 세력이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언론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은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VOA는 전했다.



영 김 미 하원의원 @영상 캡쳐

이 같은 현상이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과 연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인다'는 국무부의 분석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기독교인인 김 의원은 한인 의원으로서 미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 전 미주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낙태, 2024년에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약 4,510만 건

전체 사망자 수의 42% 달해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4,510만 건의 낙태가 발생해 이것이 전 세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Nathan Dumlao/ Unsplash.com

미국 보수 매체 브레이트바르트(Breitbart)는 최근 "낙태 사망자 수는 암(820만 명), 흡연(500만 명), HIV/AIDS(170만 명), 교통사고(135만 명), 자살(110만 명)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앞지르고 있다. 낙태를 제외한 모든 사망자 수를 합치면 6,250만 명으로 추산돼, 낙태 사망자 수는 2024년 전체 인간 사망자 수의 약 42%"라고 소식을 전했다.

월드오미터는 주요 국제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인구 증가, 출생, 사망, 자동차 생산, 도서 출판 및 CO2 배출량 등을 추적한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수치를 인용해 매년 전 세계에서 수행된 '문서화된 낙태 건수'도 기록한다.

미국에서 낙태 사망자 수는 연간 사망자 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해당 매체는 지적했다.

프리벤티브 메디슨 오픈저널(Ope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낙태로 인해 흑인 사망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클레나드 차일드리스 주니어(Clenard Childress Jr.) 목사는 이 현상을 '흑인 대량 학살'의 한 형태로 묘사하고, 모든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신의 52%가 낙태로 끝났으며, 낙태가 여성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규제되지 않는 의료 시술이라고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데이터가 있는 최신 연도에 1,000명당 24.4건의 낙태를 기록해 모든 인종 중 가장 높은 낙태율을 보였다. 반면 백인 여성은 이 수치가 1,000명당 5.7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흑인 아기가 백인 아기보다 낙태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는 가디언(The Guardian), 글로브앤메일(Globe and Mail), 유로뉴스(Euronews),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전했다.

라이프사이트뉴스는 2024년에 낙태로 인한 태아 사망자 수 약 4,510만 명을 캐나다 전체 인구인 약 4,010만 명과 비교하면서, "매년 한 나라 전체가 낙태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세계 출산율 감소를 보도하는 많은 뉴스 매체가, 이러한 추세를 매년 수천만 건의 낙태와 연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는 낙태를 사망 원인으로 제시하는 미디어를 억압하거나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씨뉴스(CNews) 진행자 에이메릭 푸르바이스(Aymeric Pourbaix)가 지난해 2월 낙태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한 이후, 현지 미디어 규제 기관인 ARCOM은 해당 매체에 10만 유로(1억 5,14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에 따르면, 낙태는 연간 7,300만 건에 달한다.

ARCOM은 "씨뉴스가 정보 제공 및 처리에 있어 (매체의) 정직성과 엄격성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혜진기자



국제기독연대, '세계 박해지수' 발표
'내전 중' 미얀마 · 수단 우려



▲국제기독연대 '2025 세계 박해 지수' 보고서. ⓒICC

미국제기독연대(ICC)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세계 박해지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종교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와 "기독교인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국가, 테러 조직, 정부 지도자"를 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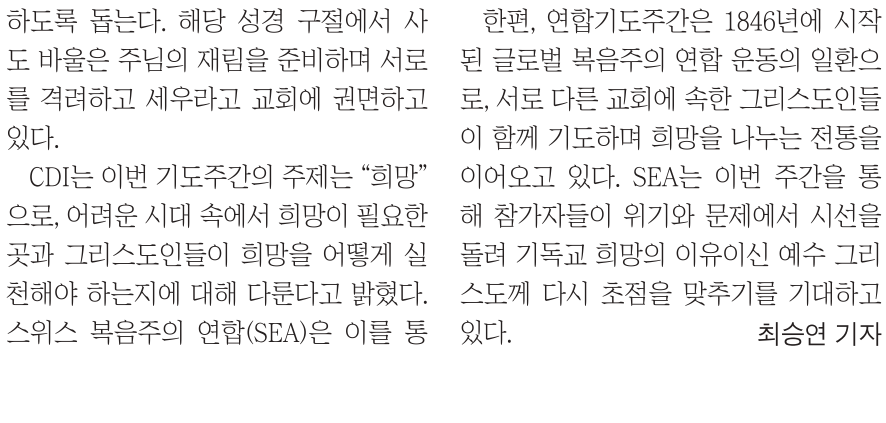
ICC가 발표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과 미얀마 등 분쟁 지역과,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 국가에서 대량 이주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단에서는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8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양측은 예배 장소를 공격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등 전국적으로 종교 활동을 방해했다. 보고서는 유엔 통계를 인용해 "2024년 초 이슬람 테러 집단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등 사헬 국가에 거주하는 약 33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전했다.

ICC는 "이 같은 강제 이주가 모든 종교 추종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테러 집단은 종종 기독교인과 비호감 종교 집단을 표적 삼아 폭력을 행사했다. 그 피해자들은 특히 강제 이주에 취약하다. 사헬 전역에서 테러리즘과 무장 폭동이 민간인의 삶을 뒤흔들고 있으며, 정기적인 종교 활동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는 차드, 에리트레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등도 포함된다. 나이지리아 북부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와 급진화된 풀라니 무장세력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자주 받아, 최근 몇 년 동안 수천 명이 살해당했다.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2024년 1월에만 콩고민주공화국에 거주하는 35만 8천 명이 이주했다고 밝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ICC는 해당 국가의 불안을 부분적인 '성전주의자' 무장단체인 연합민주군(ADF)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구는 기독교인이 대다수이므로, 기독교인에 대한 일부 공격은 종교적 동기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연합민주군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사헬 지역은 ICC에 의해 '적색구역'으로 분류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문을 받거나 살해당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이 구역에 포함된 다른 국가로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 북한, 파키스탄이 있다. 중국, 인도,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등 4개국은 정부가 "기독교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곳을 의미하는 '주황색구역'으로 분류됐다.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니카라과, 러시아, 베트남은 "기독교인들이 공격, 체포, 억압을 견뎌내는" 곳인 '황색구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권위주의 △부수적 피해 △테러리즘의 글로벌적인 이동 △박해 속의 성장 △다수의 난민 발생 △억압에 대한 대중의 불만△종교적 국수주의 △초국가적 억압 △기술의 사용 등을 글로벌 추세로 꼽았다.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전 세계 종교 자유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다뤘으나, 2024년에 나타난 긍정적인 면으로 '억압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꼽혔다. 강혜진 기자

2025년 유럽 전역 연합기도주간
희망과 예수에 초점



2025년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는 연합기도주간이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진행된다. 사진은 해당 행사의 소책자. Schweizerische Evangelische Allian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2025년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는 연합기도주간이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진행된다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독일어권 복음주의 연합단체들이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기도와 묵상을 돕기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CDI는 기도 소책자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9-11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소책자는 짧은 글, 성찰 질문, 기도 제안, 실질적인 팁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해를 낙관적으로 시작하도록 돕는다. 해당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라고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

CDI는 이번 기도주간의 주제는 "희망"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희망이 필요한 곳과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고 밝혔다. 스위스 복음주의 연합(SEA)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희망의 기초가 됨"을 강조했다.

SEA는 뉴스레터에서 "오늘날 많은 전쟁, 위기, 재난으로 인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독교 신앙이 희망을 제공하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CDI는 이번 행사가 스위스 전역 및 국경을 넘어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기도로 연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EA 공동 사무총장 비비안 크루커-보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다"며 희망이 공동체의 강력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기도주간은 1846년에 시작된 글로벌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나누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SEA는 이번 주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위기와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기독교 희망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뉴올리언스 테러 후 각계 애도와 기도 이어져



ⓒ페이스북

새해 첫날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테러가 발생한 후 각 계층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월 1일 이른 오전 뉴올리언스 번화가인 프렌치쿼터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군중을 들이받아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당국은 이 사고를 테러로 규정했다. 트럭 운전자는 텍사스 출신의 미 육군 재향군인 샴수드 딘 자바르(Shamsud-Din Jabbar·42)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공격은 끔찍한 일이다. 피해자 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것은 인간 마음속의 사악함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사악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과 많은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중 누구도 언제 폭력과 사악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은 끝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이번 공격은 우리 사회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올리언스 가톨릭대교구 그레고리 에이먼드(Gregory Aymond) 주교는 성명을 통해 "오늘 아침 버번 스트리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공격으로 사망하고 부상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폭력적인 행위는 인간 생명에 대한 전적인 무례함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올리언스 로마가톨릭 대교구의 다른 이들과 함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러한 악에 맞서 수백 명의 법 집행기관과 의료진이 보여준 영웅적인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FBI는 "차량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깃발이 발견됐으며, 범인의 단독 행동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밖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폭발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의 관련성도 조사 중이다.

강혜진 기자

美 복음주의자 61% "지난 12개월 간 교회나 자선단체 기부"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교회에 기부한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응답자 중 3분의 1은 지난 12개월 동안 교회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피니티 컨셉츠(Infinity Concepts)는 그레이매터리서치(Grey Matter Research)와 협력해 2024년 초 1천39명의 복음주의 개신교도로부터 수집한 응답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기부 격차: 복음주의적 관대함의 변화'(The Giving Gap: Changes in Evangelical Generosit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가 설문조사 전 12개월 동안 교회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1년 교회에 기부한 복음주의자의 74%에서 감소한 수치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선 기부의 감소는 교회에 대한 기부를 넘어 확대됐다. 복음주의자 가운데 절반(50%)이 지난해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한 반면, 2021년 자선 단체에 기부한 복음주의자의 비율은 58%로 측정됐다.

2021년 조사된 복음주의자의 19%는 교회 또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지 않았다. 3년 후, 응답자 중 약 3분의 1(31%)이 같은 범주에 속했다. 연구원들은 보고서에서 "우리가 검토한 복음주의 인구의 모든 계층에서 기부가 감소했다"라며 "가장 소득이 낮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교회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비율이 24% 감소했지만,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 사이에서는 7% 감소했다. 교회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 전혀 참석하지 않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21% 감소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참석하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10% 감소했다. 가장 어린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19% 감소했지만, 가장 나이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는 6% 감소했다. 모든 그룹에서 교회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교회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기부자들이 두 기관에 기부한 평균 금액도 감소했다. 2021년 복음주의 기부자들의 평균 총 기부금은 3천5백72달러로 측정됐다. 3년 후, 평균 기부 금액은 3천53달러로 감소했다.

복음주의 기부자들이 교회에 기부한 평균 금액은 2021년 2천9백53달러에서 2024년 2천5백3달러로 감소했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2021년 복음주의 기부자들이 기부한 평균 금액은 1천2백10달러였다. 이 수치는 2024년 1천1백51달러로 감소했다.

모든 복음주의자가 교회와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살펴보면 두 유형의 조직에 기부한 평균 금액은 2021년 2천8백87달러에서 2024년 2천1백19달러로 감소했다. 복음주의자 전체가 2024년 교회에 평균 1천5백38달러를 기부한 반면, 3년 전에는 2천1백81달러를 기부했다. 한편, 모든 복음주의자가 자선 단체에 기부한 평균 금액은 2021년 706달러에서 2024년 581달러로 감소했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선 기부가 감소한 현상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나타났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 중 2021년에는 90%가 자선단체에 기부했지만, 2024년에는 83%에 불과했다. 연봉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소득을 벌어들인 복음주의자 중 자선단체 또는 교회에 기부한 응답자 비율은 2021년 88%에서 2024년 75%로 감소했다. 급여가 3만 달러에서 5만9천9백99달러 사이인 복음주의자 응답자의 3분의 2는 기부금을 일부 기부했는데, 이는 2021년 이 복음주의자 그룹의 기부율 81%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연봉 3만 달러 미만 소득을 벌어들인 복음주의자의 중 절반 미만(49%)이 2024년 자선단체 또는 교회에 기부했다. 2021년에는 이들 중 약 3분의 2가 기부했다.

보고서는 자선 기부금의 감소가 장기적인 추세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前 美정보국 北담당관 "北, 트럼프 취임 · 韓 혼란기 틈타 도발 가능성"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 ⓒ뉴시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2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적 행동을 취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장기적으로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한국의 탄핵 진행 상황과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그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중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국내 이슈들도 처리할 것이라 산만하고 한국 정부는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보복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한국에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와 군을 당황케하고 모욕하며, 핵무기 보유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보복이나 비용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상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30년동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치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결렬의 근본 원인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하고,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는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김정은은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회담장을 나갔고, 이것이 2019년 이후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논쟁을 환영한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북한이 '쓰거나 잃거나(Use or lose)'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지금 당연히 한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국도 그러한 길로 가게되면 북한은 딜레마에 빠진다"며 "그들은 한국이 더 많은 자원을 지녔기에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기 전에 북한이 상황을 이용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조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무역적자 해결에 매우 진지하고,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510억달러였다는 점,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3% 이하라는 점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더욱 공평한 분배를 위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에 있었다. 협상 끝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건재했고 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지도 SMA 협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높았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4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사일러 전 담당관은 CIA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국무부 6자회담 특사, 주한미군 고위분석관 등을 역임했다. 1982년 19살의 나이로 주한미군으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후 연세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등 15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했다. 현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SIS는 그를 "미국 내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박용국 기자

아이들 입양해 성착취해 온 美 동성 부부, '징역 100년'

미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강간·학대 등 성착취를 해 온 동성 부부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이 내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 월튼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애틀랜타 교외에 거주하는 동성 부부 윌리엄 줄록(William Zulock·34)과 재커리 줄록(Zachary Zulock·36)에게 아동 성추행 및 성착취, 근친상간 등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이었던 윌리엄과 은행원이었던 재커리는 지난 2018년 기독교 특수지원 기관을 통해 남자아이 2명을 입양했다.

두 사람은 애틀랜타 교외의 부유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소셜미디어에 가족 생활을 담은 사진들을 게시하는 등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입양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동들을 번갈아 강간하는가 하면,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다른 소아성애자들과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끔찍한 범죄는 2022년 7월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사관들은 주거지 내부의 방범 카메라 등을 수거했고,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또 사진과 영상,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메세지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선고 공판에서 랜디 맥긴리(Randy McGinley) 지방검사는 "피고인들은 진정한 '공포의 집'을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극도로 어두운 욕망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깊이 타락했지만, 그들의 힘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피해자들의 힘보다 크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어린 피해자들에게서 본 결의는 대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각각 10세와 12세인 피해 아동들은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12: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출)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라크마 광복 80주년 기념 신년 음악회

1월 12일 오후 5시
LA다운타운 지퍼홀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랄(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이 오는 12일 오후 5시 다운타운 지퍼홀(Zipper Hall in Downtown Los Angeles)에서 올해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한편 음악회는 최근에 고국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비행기 대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음악회 형식을 겸하게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준비하던 라크마는 무안 공항 참사 유가족들들을 향한 위로를 음악에 담았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난 2022년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성악과 전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 윤 사무엘 교수가 특별히 LA를 방문하여 함께하게 된다. 그는 특히 지난 2022년 세계적인 음악가로 활동하는 공을 인정받아 독일 주정부가 주는 궁정가수의 명예를 받게 되었다. "혼이 담긴 파괴력이 있는 목소리" 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김시연이 특별출연하며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솔리스트들과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추모의 마음을 담은 "못잊어"의 깊은 애도의 선율과, 애국가의 선율이 담겨있는 "한국 환상곡 합창"을 통해 광복 80주년의 해를 되새기길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문의: 213-700-0053, elderschoir.com



라크마는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및 무안공항 참사 추모 음악회를 12일 지퍼홀에서 연다.

"만나며 사랑하며" 지역주민 초청 찬양집회

2025년 교회 표어를 "만나며 사랑하며"로 정한 어노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소재 2902 Montrose Ave., 담임 신경섭 목사)는 오는 1월 18 (토) 오전 11시 지역주민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Repair Servant'로 잘 알려진 마원철 목사의 간증과 찬양으로 진행될 이 날 집회는 "만나며 사랑하며" 교회 표어처럼 주님과 만나고,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주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문의 : 신경섭 목사 224.622.9183.


어노인팅 교회가 1월 18일(토) 오전 11시 리페어 서번트의 마원철 목사 초청 찬양집회를 연다.

파사데나 장로교회 최진영 목사 위임예배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12일 오후 3시 30분 최진영 목사 위임예배를 개최한다.

최 목사의 위임은 작년 11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회중의 만장일치 찬성과 샌 가브리엘 노회의 투표를 거쳐 승인됐다. 최 목사는 한국어 회중 담임목사로 정년까지 사역을 이어가게 된다.

최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예일 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2022년부터 파사데나 장로교회 한국어 회중 담임목사로 사역해 왔다.

위임예배는 PCUSA총회 한인목회 초대 총무 김선배 목사가 설교하며 남가주 한인 음악인들의 찬양 순서가 마련된다. 위임예배는 미국장로교 규례에 따른 위임식으로 진행되며 예배 후 리셉션이 열린다.

주소: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일시: 1월 12일(주일) 오후 3:30
문의: 배미원 장로 213-796-9123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12일 오후 3시 30분 최진영 목사 위임예배를 개최한다.

은혜한인교회 2025 신년 축복 성회 1/23-26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1월 23일-26일(목-주일)까지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를 초청해 '0점 인생 명품 인생'이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 성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비전센터(본당)에서 개최되며, 목 오후 7:30, 금 오전 5:20과 오후 7:20, 토 오전 6시, 오후 7:30, 주일 1~4부 예배 때 있다.

하 목사는 개척교회 때부터 '전교인 100% 참석에 도전하는 새벽기도 총진군'을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가난한 피난민 아들로, 십대 시절 푸줏간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공부할 시간이 없어 빵점이었던 인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 간증해 왔다.

김민선 기자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가 1월 23일(목)-26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연세 신년 조찬 기도회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연세 신년 조찬 기도회가 1월 11일(토) 오전 8시 가든 스윗 호텔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의 설교는 박충기 목사 (연세 물리 67학번, 현 Jesus Image Society 이사장)가 맡는다.

아침식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참석을 여부를 알려야 한다.

연세 조찬기도회 서문준 회장은 "이번 연세 조찬기도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연세대 동문 뿐 아니라 가족과 교민들도 함께해 조국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박민희 (714-323-5015)

LA베이직 교회 1주년 감사예배

LA 베이직 교회(이선기 목사)가 1월 12일(주일) 낮 12시에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LA연합감리교회와 윌셔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반성경적 정책에 반대하여 이선기 목사를 청빙해 개척한 교회이다.

주소: 1304 S. Cochran Ave. LA, CA
문의: 213-255-0521

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 2025년 신년 메시지



샘 신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사랑하는 남가주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를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역할로 확장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5년에도 지역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하나 되어 이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역 목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협력 강화

남가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동역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동행

교회가 지역 사회의 필요를 민감히 살피고, 이민자들과 2세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양성과 리더십 개발

젊은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전한 신학과 신앙 수호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한 건전한 교리를 확립하고, 이단과 세속화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에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차세대 리더십 서밋과 연례 한인 교회 축제를 통해 교회 간의 연합을 강화하고, 한인 커뮤니티 지원 허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며 이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그리고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준민 칼럼

하나님은 새 이야기를 쓰길 원하십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새해에 새 이야기를 쓰길 원하십니다. 새해는 책의 새로운 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매일 새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과거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고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새롭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얼마든지 새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새 작품과 새 책과 새 제품과 새 시스템과 새 만남과 새 사역, 새 선교헌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사 43:19). 새 길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 놓으신 길은 "새로운 살 길"(히 10:21)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래에 전개될 복된 일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만 읽고 있으면 현재와 미래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과 지혜와 경험과 경륜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늘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애굽을 떠났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광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히 10:38).

새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새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 꿈을 꿉니다. 새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새 목표를 세우고 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똑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응력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새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 변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남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새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브리아나 위시트(Brianna Wiest)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기회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새해와 새로운 하루는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자각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글을 누가 대신 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스토리를 누구도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이야기는 각 사람이 써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도적인 마음과 의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저절로 자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싹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원사가 의도적으로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씨앗를 심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씨앗만 주십니다. 씨앗은 우리가 직접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기회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하루 시작한 새로운 선택과 결단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원리는 늘 간단합니다. 큰 꿈을 꾸십시오.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지만 언제나 작게 시작하십시오. 큰 목표를 작게 나누어 성취하십시오. 뜨거운 열정보다 꾸준한 작은 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홍자성은 "빨리 핀 꽃이 먼저 지고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고 말했습니다. 제 삶의 비밀은 날마다 작은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글을 씁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미래를 준비합니다.

성경은 "항상"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날마다"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은 노력을 반복하십시오. 로버트 콜리어는 "성공은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총합이다."고 말합니다. 작게 시작한 것을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반복하면 축적됩니다. 축적하면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부디 작은 시도를 반복함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새해가 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김한요 칼럼

2025 엘새는 만땅 채우는 시간입니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업을 시작해도 투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과연 뭘 수 있는 기본 자산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뛰는 것은 사막길을 물 한 병 없이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물탱크와 가는 길이라면, 막막한 사막 길인들 겁이 나겠습니까? 새해라고 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좋고 항상 즐거운 것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산이 든든하면,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도 넉넉히 대처해 나가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델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며 늘 새벽 특별집회로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라 명명하며 우리는 [엘새]라 부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주신 메세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말 4장).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엘리야 특별새벽기도로 찾아오신다는 메시지로 적용이 바로 되어 버렸습니다. 새해에 잘 달려가기 위해서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동차에 '만땅' 주유를 하듯이, 혹은 전기차 맥시멈으로 충전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 자산을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엘새에 남은 한 주간 영적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지혜를 배웁시다(마 25장). 밤을 밝히는 길은 기름을 만땅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예수의 소망으로 밝힐 수 있는 길은 영적 자산을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든든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채우는 것입니다. 개근하여 만땅 채웁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달려 가십시다.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와야 하냐구요? 예배당에서 엄마 무릎 베고 자는 아이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등교를 해야 하는 아이들도 엘새에서 기도하고 교회 밥 먹고 보내주십시오. 영력 만땅으로 쌩쌩하게 등교할 것입니다.

잠이 부족할지 모르니, 이번 한 주간만은 저녁 먹고 바로 주무십시오. 이 한 주간은 티비 끄고 기도의 등불만 켜십시다. 드라마 없이 살아도 기도 없이 못 산다! 가훈으로 외치고 이 한 주간 영적 자산 비축을 위해 총력을 다합시다. 우리가 엘새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전히, Jesus Alone.

송재호 새해 칼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처럼 순결하게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벌써 고대하던 2025년 새해가 밝아왔다. 한 해가 다 지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새삼스럽게 세월의 빠름을 뼈저리게 느낀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할 때 느끼는 감회는 깊고 새롭기만 하다.

특별히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한다. 그런데 "뱀"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면 흥미롭다. "배"와 "움"이 합쳐져 "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뱀은 배로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필자에게도 뱀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한 흑인 여학생이 항상 큰 뱀을 목에 감고 다녔다. 얼마 후 기숙사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유인즉슨 어느 날 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뱀이 에어컨 연통을 타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숙사에서는 혹시 자신들의 방에 뱀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 역시 충격과 공포를 느끼며 그 사건 이후로 뱀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 성경에서도 뱀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4개, 헬라어로 2개, 총 6개가 소개되고 있다. 그중에서 "나하쉬(נָחָשׁ)"는 가장 일반적이며 모든 뱀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Serpent"로 번역하는데, "다리가 없는 파충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성경 속 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다. 이는 인간의 타락과 원죄 문제에 등장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을 소개하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서 뱀은 악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며 이후에는 사탄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래서 뱀은 우리에게 경각심과 신중함을 일깨워주는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뱀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진 동물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바라건대, 올 한 해 2025년에는 복음의 진리로 다시 무장하여 지혜롭고 강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손경민, 더 은혜 워십팀 초청 자선콘서트

미주복음방송은 2월 14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나눔On 희망On' 콘서트를 개최한다. 미주복음방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2025년에는 미얀마 카렌족 난민과 팔레스타인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이 함께하며, 감사한인교회,(14일 오후 7시) 인랜드교회(15일 오후 6시),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16일 오후 6시), 얼바인온누리교회(21일 오후 7시), 에브리데이교회(22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23일 오후 6시)에서 개최된다. 티켓은 $20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

문의: 714-484-1190

강태광의 신년 시

새해에는 생명의 춤을 추자

새해에는 생명의 춤을 추자

동장군이 심술부리는 한 겨울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절망의 한 숨소리 가득한 곳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사망의 아우성 요란한 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

새해엔
사랑의 가슴으로
희망의 노래 부르며
생명의 춤을 추자

새 아침 태양이 솟을 때
사랑의 가슴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생명의 춤을 추자

새해에도
아픈 봄날도 오고
무더운 여름도 오고
쓸쓸한 가을도 오고
냉혹한 겨울이 오겠지만

새해에는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며
목놓아 희망을 노래하며
더 벅찬 감격으로 생명의 춤을 추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곽찬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11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i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놀웍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철야기도 오후9: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언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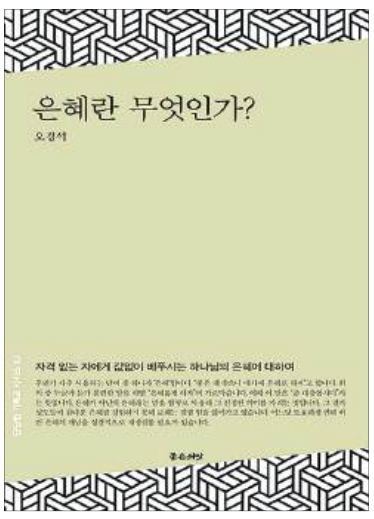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후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중예배 목요 오후 8:00(한어) / 금요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 오후 8:00** (한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간절히 손을 내밀라

은혜 받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오경석 | 좋은씨앗 | 136쪽 | 7,000원 | 18,000원

기독교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다룬 신작이자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의 19번째 책. 『은혜란 무엇인가?』는 구약과 신약을 바탕으로 은혜의 개념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며, 구약과 신약에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한다

구약에서는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 여러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작용했는지 다룬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정점에 다다르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은혜는 구원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은혜란 무엇인가?〉의 저자, 오경석 목사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성경공부 교재 집필 및 고신총회교육원 연구원 사역 등을 바탕으로 교회 교육과 관련된 교재와 서적을 주로 써왔던 저자는, 최근 좋은씨앗을 통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이어(2023), 이번에 〈은혜란 무엇인가?〉까지 기독교 핵심 교리를 다루는 책을 썼다.

여는 글에서 그가 밝힌 것처럼, 오랜 세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성경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에 매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른 자기 상태를 발견하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하며 이 책을 썼다고 한다(9쪽). 저자는 은혜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을 찾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저자는 6개월 정도 은혜를 연구하고 갈급해하며 부지런히 찾는 과정을 통해, '은혜는 배우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혜란 무엇인가?〉는 그래서 그동안 명쾌하게 설명된 적 없는 은혜에 관한 가르침을 전수하는 책이라기보다, 저자가 배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독자가 함께 배우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교회교육 전문가답게 '소그룹을 위한 질문'이 각 장 끝에 있어 함께 은혜를 배우고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2-3장에서는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은혜의 개념 그리고 은혜가 나타난 방식을 설명한다. 4장은 저자가 가장 알기 원했던 '은혜받는 방법'을 다룬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5장에서 은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요구한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사용된 용어(단어)의 원래 의미와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은혜의 개념을 정리하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다룰 때는 특별히 교리문답 등을 활용해 실질적 적용을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은혜를 정의하는 절대 권위로 사용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일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믿음의 선배들이 서약하고 실천해 온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힘쓰고 또 그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애쓰는 것도 정말 합당한 일이다. 저자 오경석 목사는 오늘날 신자가 은혜를 쉽게 오해할 수 있다고 바르게 진단한다. 일반 은혜를 넘어 특별 은혜를 신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둘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18쪽)' 은혜이다.

저자는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고 선언받게 하며(칭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빚으신다고 한다(성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앞서 말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신자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자는 "값비싼 은혜는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고, 기도로 간구해야 할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21쪽)"라고 말했다. 계속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귀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을 통해 은혜받는 세 가지 수단, 곧 말씀과 성례(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를 제시한다. 각 방편을 하나의 주제로 풍부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자는 이 세 가지 수단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만일 누군가 저자처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 듯 공허함과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지 간절히 알기 원한다면, 저자가 앞서 설명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단순한 세 가지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Unsplash/ NATHAN MULLET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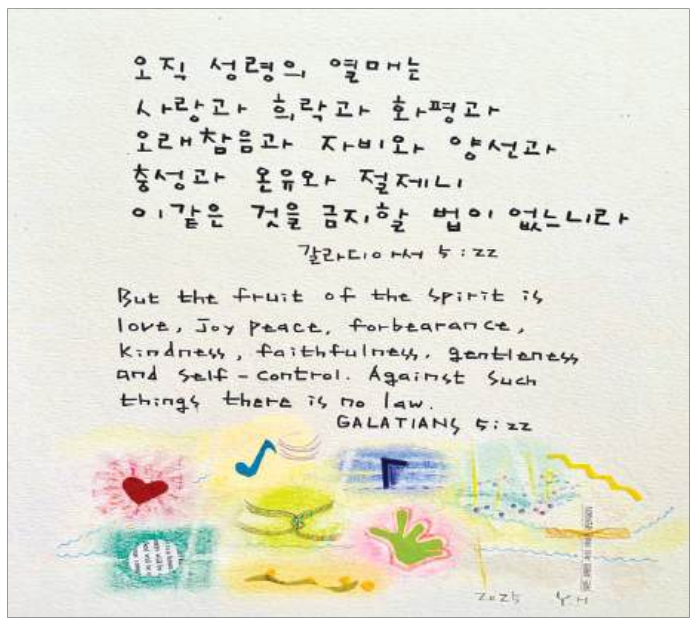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아는 자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빈손을 내밀어 그분의 호의를 바라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민 빈손이 부끄럽게 돌아오지 않고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저자 오경석 목사가 은혜를 풍성히 채우기 위해 겸손히 분투했던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바란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웹툰 기반 시리즈 〈정년이〉 (2)

〈정년이〉, 한국형 페미니즘과 기독교 신앙의 충돌

여성들 교회 내 활동기회 보장은 성경 가르침 부합, 권장해야 하나
좌경·세속화 여성우월주의 사상 교회 침투하는 건 경각심 가져야



1950년대 유행했던 여성 국극을 둘러싼 여성 예술인들의 성장과 애환을 그린 드라마, 〈정년이〉.

페미니즘 발흥 배경: 여성들의 성경 및 신앙 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역자들의 노력

기독교 신앙은 서구 페미니즘의 발흥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물음을 놓고 생각해볼 때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기독교 신앙이 부분적으로는 서구 페미니즘의 직접적 기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서구 페미니즘 전체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서구 페미니즘의 가장 오래된 조상격 인물로 여겨지는 18세기 여류 계몽주의 문인이자 사상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는 남성중심적 위계질서를 고수하는 당대 신앙 체계의 비합리성을 질타했다. 그녀가 무신론자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그녀가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것도 아니다. 당대 영국 사회와 교회는 전통적 가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던 그녀의 연애와 출산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20세기 초 철학적 페미니즘을 처음 창안한 이들(대표적으로 보부아르) 역시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여성의 삶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으로서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서구 페미니즘 발흥에 유리한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성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 특히 부르주아지(bourgeoisie)가 주로 활약했던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성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중세 후기부터 제법 활발하게 이뤄졌다. 부르주아지에 속한 이들은 서로 급이 맞는 가문에 딸들을 시집보내기 위해, 그리고 주변인들과 교회로부터 딸들이 좋은 평판을 얻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부르주아지 가문 여성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성경과 사교법, 예절을 가르쳐야 했으므로 일찍부터 언어와 문학, 그리고 화법과 예절 교육을 받았다.

이런 현상은 시대를 건너뛰어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서도 재현되었다. 구한말 조선에 파송된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한국 사회 전체에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여성들을 위한 성경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이화학당을 건립했다.

원래 스크랜튼 여사는 이 조선 최초 여성 교육기관 이름을 전신학교(專信學校, Entire Trust School), 즉 '온전한 믿음'의 학교로 지으려 했으나, 조선 왕실이 학교 설립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해준 사실을 기려 조선 왕실의 상징인 배꽃, 즉 '이화(梨花)'로 정했다.

이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한국에도 여러 여성교육기관들이 생겨났고, 여성들의 지식의 폭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근대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춰야 할 실력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정년이〉의 배경인 1950년대 중후반 서울에는 비록 지금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적어도 전통 조선 향촌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성의 교육과 삶의 자주성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생각이 '깨인' 여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여성의 교육과 자주적 삶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노력이 그나마 여성들에게 사회적 활동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페미니즘의 퇴락 배경: 여성인권신장운동,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야합

〈정년이〉의 서사와 기독교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작품의 중심서사인 주인공 윤정년(김태리 분)의 상경기 및 성장기는 기독교 여성 교육이 바꾸어 놓은 건국 초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분위기를 십분 반영하고 있다. 목포에서 수산물을 팔던 시골 소녀가 우연한 기회에 가출하듯 서울로 올라와,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성공 기회를 잡으려 발버둥친다는 서사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성리학 전통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 한국 향촌에서 여성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그나마 여성들이 대도시로 나오면 도시에 몰린 자본의 혜택, 교육과 취업 혜택을 누릴 실낱 같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전쟁 전까지 서울과 평양,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로 서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회였다. 서울의 이런 분위기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여성 교육 기회 확대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 힘입어 여러 '신여성'들이 등장했기에 조성될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나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페미니즘이 등장할 수 있다. 남성들에게 집중된 자본을 조금이라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기반, 그리고 교육받은 여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갖춰져 있어야 페미니즘이 발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페미니즘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청교도 신앙 전통이 강했던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1세대 페미니스트와 기독교 여성운동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여성 참정권과 금주법 통과라는 성과를 얻어냈다(금주법은 성과보다는 폐해가 많아 나중에 폐지되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상당수가 기독교인 여성이었다. 이들은 "남종과 여종(욜 2:29, 행 2:18)"의 평등이라는 성경적 믿음에 입각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의 이런 우호적 관계는 68혁명 이후 전 세계 여성운동계를 휩쓴 2세대 페미니즘의 등장과 함께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다. 68혁명을 주도했던 학생들과 사회운동가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주의자이거나 무정부주의자였다. 사회주의는 유물론을 신봉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은 공적 권위를 부정하니, 기독교 신앙과는 상극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러니 이 시기 이후의 페미니즘은 기독교회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이 2세대 페미니즘보다 몇 배는 더 급진화된 3세대 페미니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3세대 페미니즘은 자유로운 낙태를 전면 찬성하고, 여성들의 삶에 남성이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일 자체를 범죄시하는 기형화된 인간 이해를 표방하기에, 기독교회 입장에서는 아예 상종하기 어려운 사상이다. 그러니 현재 한국에서 이 급진화된 통속적 페미니즘에 물든 이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여성들만의 배타적 특권이 보장된 세계를 꿈꾸는, 그러면서도 남성들의 노동력과 그로 인해 산출된 재화는 마음대로 이용해 먹기를 바라는, 이 모순된 사상의 유입에 대해 한국교회가 매우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단 교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여성들이고, 현재 꽤 오래 지속된 좌편향 교육의 영향, 그리고 역시 좌편향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의 기형적인 통속적 페미니즘에 크든 작든 영향을 받아 왔다.

이번 동덕여대 불법시위 사태는 그런 문화적·교육적 배경 속에서 자라온 세대가 급진화된 기형적 페미니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과 만날 때 벌어질 수 있는 비극의 대표적 사례다. 남녀를 완전하게 분리해 여성만의 공간과 특권을 확보하려는 여대 학생들 다수의 근거 없는 피해의식과 집단이기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서 점차 지배적 정서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애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지도 않을뿐더러, 혹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회개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에 마음을 두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성의 권리 보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이들이 회개와 헌신과 순종의 책임을 흔쾌히 지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래 들어 페미니즘은 사회주의 사상의 한 지류 혹은 파생형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못지 않게 교회의 복음화 노력을 근본으로부터 무력화시키는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드라마 〈정년이〉가 내세우는 오직 여성의 성공을 위한 삶의 공간, 오직 여성이 주도하는 문화조류 확립이라는 메시지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소외시키는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바람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교회 내 여성 목회자 직립이나 여성 교역자들의 활동기회 확장은 "남종과 여종"의 평등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도 부합하기에, 거부하거나 꺼릴 이유가 없다. 성별에 상관없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이, 분명한 소명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막을 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경화되고 세속화된 여성우월주의 사상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에 침투하는 데 대해서는 교역자들과 신자들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많은 여성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통속적 페미니즘이 '비기독교적' 성향의 단계를 넘어,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비이성적 집단주의로 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툼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청빙
Missouri주 Springfield에 위치한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으신 분
2. 목사 안수후 5년이상 목회 사역을 하신 분
3. 미국에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신학대학원 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4. 본인 사진 및 가족 사진 각 1매
5. 추천서 (목회자 2인, 추천인이 직접 아래의 이메일로 발송)
6. 최근 6개월내 설교동영상 1편
* 제출하신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제출방법 및 문의
■ E-mail : youngdo147@gmail.com 또는 아래의 주소로 제출
■ 교회주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청빙위원회)
1559 S Grant Ave.
Springfield, MO. 65807
■ 전화 : 417-559-3001, 417-844-1037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공산 세력과 자유 진영과의 전쟁

전쟁 중인데 전쟁 중임을 모르는 이들에게 닥칠 재앙



안승오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이 글의 제목을 보면서 혹자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전쟁의 특징이다. 전쟁이란 "군사력을 이용해 다양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을 매우 혐오하고 지탄하기에 가능한 군사력이 아닌 부드럽고 그럴듯한 힘을 동원하여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전쟁에서는 위장 전술 즉 적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허를 찌르는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전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전쟁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전쟁 전술의 하나일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전쟁을 말하기 전에 쉬운 이해를 위해 개인 차원의 전쟁 양상을 생각해 보자. 전쟁이란 국가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도 이처럼 남의 것을 뺏으려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로 가득하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으로 겪는 피해만 매년 5천억 원 내외가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온갖 사기, 절도, 강도 등으로 겪는 피해는 가히 그 금액을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조금 고상한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적로는 다른 국가를 침탈하고 빼앗으려는 각종의 전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에 이런 일을 대놓고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산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늘 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전쟁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차원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첫째, 북한이 걸어오는 전쟁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고 동시에 우리의 주적이기에 북한을 대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미묘한 난제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6.25 전쟁을 비롯하여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자행하였고,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남한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친북' 또는 '종북' 지도자들을 만들었다.

이런 인물 가운데는 수년 전에 국회의원까지 지내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뒤엎을 계획을 세웠던 통진당의 한 의원, 그리고 2023년에 간첩 행위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받은 민노총 인사 같은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민노총에 친북 독서 모임을 만들고자 했고, 자신이 민노총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 북에 보고했고, 북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 매수는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노동계 지도자들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들을 친북 인사로 만들었고, 이러한 친북 종북 인사들이 북한의 침투를 남한에서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과거 성벽이 존재하던 시절에 한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성을 직접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성문을 지키는 자를 매수하여 성문을 열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었던 것처럼, 한국 내에 있는 친북 종북 인사들은 북한의 남한 지배를 위해 남한에 있으면서 성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중국이 걸어오는 전쟁을 생각해보자.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방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제한 전쟁인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을 벌여왔다. 중국은 모든 분야를 전쟁터로 삼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금융, 첩보 등의 분야에서 민간 외교를 가장한 다양한 전술을 통해 서방국가를 공격해왔다. 2024년 '영국 의회 국가 안보전략 합동위원회'(JCNSS)는 중국이 영국 총선과 캐나다 총선 등에 개입한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적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런 나라를 중국이 침투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무지한 관점이다. 북한이 그렇듯 중국 역시 대한민국에 친중 또는 종북 인사를 대량 만들어서 중국에 유리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중국이 우리 등에 빨대를 꽂도록 만든다.

중국이 친중 인사를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엄청난 이권, 금전, 향락을 제공하면서 주요 인사들을 점진적으로 종중 매국 세력이 되도록 만든다. 특별히 선거 개입을 통해 친중 종중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에게 선거에서의 승리를 안겨준다면 해당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어떤 매국적인 행각도 서슴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친중 종중 인사들은 주로 좌파 계통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가운데 많지만, 자유 우파 진영에 속한 인사들 가운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매국노는 친일파가 아니라 바로 친중 종중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 혼란의 원인을 보는 관점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은 공산 세력과 자유 진영과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침투하여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욕을 지닌 공산 세력과 이런 전쟁을 막아보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세력 간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시각은 매우 복합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단순화 오류의 위험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고자 하면,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면서 큰 그림으로 문제를 파악할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양 세력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전 상황에 놓여 있다. 많은 사람은 대통령이 탄핵 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한민국은 자연히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문제를 앞서 분석한대로 공산 세력과 자유 우파 간의 전쟁으로 보면 이 싸움에서 자유 우파 장수의 탄핵은 곧 공산 세력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아울러 많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가 영구히 비밀로 묻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거짓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친중 매국 세력이 나라를 중국 같은 전체주의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게 빨대를 꽂히고 양분을 다 빼앗기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전쟁 중에 장수가 죽으면 그 전쟁은 십중팔구 필패하게 된다. 장수가 죽지 않도록 자유 우파의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전쟁 중에 장수의 목이 날아가면 모두가 죽기 때문이다.

안승오 교수(영남신대)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에서 수학한 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신학석사(Th.M) 학위와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총회 파송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며, 풀러신학대학원 객원교수, Journal of Asian Mission 편집위원, 한국로잔 연구교수회장,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선교와 신학』 및 『복음과 선교』 편집위원, 지구촌선교연구원 원장, 영남신학대학교 선교신학 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다.

존 맥아더 목사, 지난해 3번 수술받고 아직 입원 중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존 맥아더(John MacArthur·85) 목사가 지난해 세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톰 패튼(Tom Patton) 장로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존 맥아더 목사가 일련의 건강 문제로 연단에서 물러났으며, 2024년 하반기 세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패튼 장로는 "그의 회복은 예상보다 느렸고, 가끔 심장, 폐,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다. 의료진은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맥아더 목사는 지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그와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레이스투유'(Grace to You) 대표인 필 존슨(Phil Johnson) 장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맥아더 목사가 완화 치료(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예방하는 치료법)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일축했다. 그는 "존 맥아더 목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공개적 발표를 원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그의 습관 중 하나이며, 수년 동안 이어온 정책이다. 그의 건강에 대한 공개 발표가 드문 것은 현재의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이해할 만한 정책이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솔직히 말해 건강에 대한 수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고, 선의로 제공되는 수많은 엉터리 치료법을 다루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그는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있으며, 이는 HIPAA(미국 의료정보보호법)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맥아더 목사는 비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969년부터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를 이끌어 왔으며 현재까지 약 3천 회 이상의 설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Scan me!